이상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 양파껍질 벗기기-

나은진

국문초록

이상 소설은 자의식이 넘치는 소설이라 규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의 자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이 타자들은 비 혈연관계로 맺어진 일대일의 성적 대상자로서의 여성들이다.

남성성은 이상 본인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방식을 통해 구현되며, 여성성은 이상의 여성편력과 관계되어 소설에 형상화된 각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상 소설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인물의 외모에 대한 묘사와 상징, 그리고 당대 성담론이 담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의 갈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뚜렷해진다. 여성이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것과 남성이 '수염깎기'하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이며, 여성은 머리를 자름으로써 힘을 얻고 남성은 힘을 빼앗긴다.

이상과 그의 여성의 성역할은 언제나 기존 담론으로부터 뒤집혀진 상태로 나타난다. 그런 상태에서 여성의 정조 지키기는 가족부양과 맞바꿔질 수 있었다. 타자로서의 여성성과 이상 자신이 그려내는 남성성은 각각 식물적 상상력과 동물적 상상력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또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만남은 무화된 '시간'으로부터 개별화된 '세월'로의 전이과정이다. 또 여성성의 공간이 화려하면서도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수시로 걸치고 돌아다니는 '옷'이라면 남성성의 공간은 음침하게

정체되어 있는, 폐쇄된 '방'인 것이다. 양성 공간의 대립은 '옷'과 '방'으로써 확인된다. 이상의 피해의식은 자신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수시로 입었다 벗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수많은 옷처럼 임의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남성성의 상징물인 '방'은 하나뿐이고 움직일 수 없는 정형화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게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갈등과 이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공간성이 유동적인 옷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양파'로 규정될 수 있다. 남성들이 기대하는 알맹이가 없는 존재, 벗겨도 벗겨도 껍질밖에 없는, 껍질 그 자체가 양파의 본질이다. 양파야말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상징인 것이다. 남성적 섹슈얼리티로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의 인생은 상징계적인 도덕성이 남성위주의 가부장제로서 억압할 수 없는 여성성을 만났을 때로 규정된다. 여성과 남성의 끝없는 경합을 통해 자기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지닌 속성을 '양파'와 '소수'(素數)라 받아들일 때, 이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규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걸맞게 남성성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데, 이상은 그것을 절름발이의 인생이자,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린 형해의 흔적이라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날개를 얻는다.

전통적 가치관의 질서의식이 부여하는 억압으로부터의 일탈, 그것은 이상소설이 보여주는 양성구유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우리의 현대 문학사에서 이상(李箱)은 불세출의 작가인 동시에 폐병으로 요절한 불우한 천재라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그에 대한 연구도 해마다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그의 작품 텍스트를 집대성하고 주석을 다는 것에서 출발하여[1]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의 소설이 지닌 관념성과 언어표현의 기교[2]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도 있고, 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연구[3]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내재

1) 임종국, 『이상전집』(고대문학회, 1966)
이어령, 『이상전집』전4권(갑인출판사, 1977)
김윤식, 『이상문학전집』전4권(문학과 지성사, 1991)

적 문학연구의 관점에서 시간성[4]과 공간성[5], 서술구조[6], 인물[7]에 대한 연구 업적도 많은 분량을 자랑한다. 모더니즘의 관점[8]에서, 그리고 주변학문인 수학과 건축학, 미술분야에서의 비교연구[9]도 행해졌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업적 중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상소설을 다시 본 연구[10]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11]

본고에서는 이상의 소설들 중에서 「단발(斷髮)」(『조선문학』 1939.4), 「동

---

2) 김주현, 「이상소설의 글쓰기 양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조갑순, 「이상소설의 문체분석」(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83)
설영숙, 「이상소설의 탈중심적 담론연구」(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1995)

3) 이현숙, 「이상소설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위상」(수도여자사범대 석사학위 논문, 1976)
최영희, 「이상소설에 나타난 소외과정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8)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문학사상』, 1986.11.)

4) 허남영, 「이상소설에 있어서 주관적 시간의 의미」(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1)
권윤옥, 「이상소설의 시간분석」(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조금희, 「이상소설에 나타난 시간연구」(효성여대 석사논문, 1989)
노지승, 「이상소설의 시간성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5) 황도경, 「이상소설의 공간성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7)
_____, 「이상의 소설공간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3)
이계윤, 「이상소설의 공간 연구」(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5)

6) 이시영, 「이상소설의 서술구조 연구」(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0)
이병렬, 「이상소설의 서사구조 연구」(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1996)

7) 허민석, 「이상소설의 인물연구」(제주대 석사학위논문, 1995)
이 경, 「이상소설에 있어서 작중인물의 양면성 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5)

8)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자의식」, 『한국학보』55집, (일지사, 1989. 여름호)

9) 김윤식 편저, 『이상문학전집 4- 이상연구에 관한 대표적 논문 모음』(문학사상사, 1995)

10) 강금숙, 「여성의 글 여성의 삶」(국학자료원, 1999)
이 글에서는 이상의 「날개」를 중심으로 양성이 교차된 공간성을 살펴보았다.

11) 여성작가가 쓴 소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모리스, 팸, 「다시 바라보기:여성의 읽기」,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1997), pp.31~67.

해(童骸)」(『조광』 1937.2), 「환시기(幻視記)」(『청색지』1938.6에 유고로 발표), 「지주회시」(『중앙』 1936. 6), 「날개」(『조광』 1936. 9), 「봉별기(逢別記)」(『여성』 1936. 12), 「실화(失花)」(『문장』 1939. 3. 유고로 발표), 「종생기(終生記)」(『조광』 1937. 5) 등 남녀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남성작가로 알려진 이상 본인의 남성성(masculinity)과 그가 바라보는 타자로서의 여성성(femininity)을 대비해 보고, 양자의 상호관계가 소설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과 이상의 남성성

이상 소설의 화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작가 본인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그런 점에서 화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적 고찰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 여기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언제나 남성중심 사회에서 타자화되어 왔던 여성을 남성화자와 동등한 비중으로 놓고 그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성의 관점에서 거꾸로 남성성을 비추어 봄으로써 이상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일탈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성편력과 피해의식에 대한 담론은 이런 과정으로 다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1) 외모가 드러내는 이성(異性) – 단발과 수염깎기

이상 소설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 신혼 방에서 만난 자기 신부의 외모조차도 몰라서 묘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좀 더 자세한 묘사라고 해야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라는 정도이다.

> 일어나더니 — 나는 지금 이러한 임이를 좀 묘사해야겠는데, 최소한도로 그 차림차림이라도 알아두어야겠는데 —[12]

그는이왔다갔다하는똑같이생긴화장품—사실화장품의고하가그들을구별시키는외에는표난데라고는영없었다—얼숭덜숭한아내들을두리번두리번돌아보았다. 헤헤—모두그렇겠지—가서는방에서(참당신은너무닮았구려)—그러나내아내는화장품을잘사용하지않으니까—아내의파리한바탕주근깨—코보다작은코,—입보다얇은입—(화장한당신이화장안한아내를닮았다면?)-「용서하오」—그러나아내만은왜그렇게야위나.무엇때문에(네죄(罪))(네가모르느냐)(알지).[13]

여성에 대한 묘사는 체격으로 드러나는 실루엣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얇은 입술", "창백한" 정도이다. 화장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번 나오지만, 화장은 옷처럼 본질을 가리는 가면이며 보통사람들과 동일화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내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의 소설에 형상화된 여성들은 뚜렷한 개성을 지닌 개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여성상으로서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상 소설의 여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유표화되지 않는 기호에서 출발한다. 소설 전반부는 대개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에피그람으로 채워지고, '소녀는', '아내는' 과 같은 일반명사로서 지칭된다.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름이 등장하며, 이름을 막바지에 지나가는 듯이 한번만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다.[14]

그러나 화자의 이런 의식상태를 역전시키는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양식이 있다. 그것은 '단발' 로서 표현되고, 여성의 단발은 남성인 삼손의 단발과 정반대의 의미로서 나타난다.

『좋군요 — 교수 —, 제가 제 맘대로 교수를 사랑해도 좋지요? 안 되나요? 괜찮

12) 이상, 「동해(童骸)」, 『이상문학전집2-소설』, 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1), p.261
13) 이상, 「지주회시」, 위의 책, p.305
14) 「날개」의 경우, '아내' 로서 계속 지칭되다가 막바지에 '연심' 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 노출된다.

지요? 괜찮겠지요 뭐? 단발했습니다. 이렇게도 흥분하지 않는 제 자신이 그냥 미워서 그랬읍니다.」

단발? 그는 또한번 가슴이 뜨끔했다. 이 편지는 필시 소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게 의논없이 소녀는 머리를 짤렸으니, 이것은 새로워진 소녀의 새로운 힘을 상징하는 것일 거라고 간파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눈물이 났었다. 왜?

머리를 자를 때의 소녀의 마음이 필시 제 마음 가운데 제 손으로 제 애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애인으로 하여금 저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명령하게 한, 말하자면 소녀의 끝없는 고독이 소녀에게 일인이역을 시킨 것임에 틀림없었다.[15]

화자 본인은 마구 자란 수염을 깎는 행위로서 여성이 단발하는 것과 같은 비중의 행위를 한다. 평소에 자라는 채로 놔두던 수염에 칼을 대서 깎거나 이발하는 행위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친연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사회의 공인된 규범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다.[16] 그런 의미에서 그의 수염깎기는 여성의 단발하기와 대조적으로 힘을 빼앗기는 삼손의 경우에 해당된다.

패배 시작
이런 풍경은 어떨까? 내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 중에—[17]

이와 같은 로직을 불언실행하기 위하여서만으로도 내가 그 구중중한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은 지당한 중에도 지당한 맵시일 것이다.[18]

---

15) 이상, 「단발」, 위의 책, p.253.
16) 그러나 이상 자신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수염깎은 형태의 사진만 남아 있다.
17) 「동해(童骸)」, 위의 책, p.263
18) 「동해(童骸)」, 위의 책, p.269.
앞으로는 직접 인용문 옆에 책 제목과 위의 책 쪽수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여보—오늘은크리스마스요—봄날같이따뜻(이것이원체틀린화근이다)하니수염좀깎소.(「지주회시」, p.298)

화자의 추레하고 왜소한 몰골에 대한 묘사나 키작고 마른 아내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아웃사이더로서의 두 이성이 서로 공유하는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상 자신과 이상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은 서로 거울처럼 상호간에 비쳐지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뚱뚱한 카페여급 마유미나 전무에 대한 묘사는 이와 대립된다. 서로의 이익과 권력이 중시되는 속물형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2) 당대적 성담론과의 어긋남 – 정조 지키기와 가족부양하기

유교적 가부장제가 지닌 전통적인 성담론의 힘은 이 시대에도 아직 강력했다. 따라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성역할[19]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사회적인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사회적인 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사용하자면, 이와 같은 성역할 담론은 강력한 상징계적 질서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상과 그의 여성의 성역할은 언제나 기존 담론으로부터 뒤집혀진 상

19) 섹스(sex)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관점에서 보는 성이다. 성적 욕망은 자연적으로 내재된 본능을 말하며 성의 개념은 남녀의 성기 결합과 같은 신체에 한정된다.
성별(gender)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성별(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일 뿐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낸다.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 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섹슈얼리티는 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모든 사회관계와의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이 받는 억압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동녘,1999) pp.23-5.

태로 나타난다. 「날개」, 「동해」, 「지주회시」, 「실화」 모두가 그러하다.

이 가련한 신부가 지금 적수공권으로 나갔다. 내 짐작에 쌀과 나무와 숯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나간 것일 것이다.

그동안 나는 심심하다. 안집 어린 애기 불러서 같이 놀까. (「동해」 pp.266-7).

금홍이는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이 못 가서 굶어죽을 것 같이만 보였던가 보다. 두 팔을 부르걷고 그날부터 나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내 방 미닫이 위 한결에 칼표딱지를 넷에다 낸 것만한 내—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날개」, p.320)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도 아닌, 아내의 이름이 그의 방에 붙어있다. 전통적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할 사회적 경제활동도 이상 소설에서는 아내에게로 넘어오며, 남편은 주로 아내에게 얹혀 살면서 낮에는 방에서 뒹굴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낮잠이나 자는 것으로 묘사된다. 남녀간의 신체적 지배 권력 역시 정상으로부터 일탈되어 전도되었다.

하루 나는 제목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 보니까 금홍이는 때 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놓고 나가 버린 뒤였다. (「봉별기」, p,352)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기존 가부장제적 가치관은 퇴색되어 버린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는 대가로서 요구받은 정조 지키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교환가치에 의해서 부인의 성이 매매되어야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성인 이상이 자신의 정조를 주장하는 역설도 성립된다.

「너는 네 말마따나 두 사람의 남자 혹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남자에게 내주었던 육체를 걸머지고 그렇게도 호기있게 또 정정당당하게 내 성문을 입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 철면피가 아니란 말이냐?」

「당신은 무수한 매춘부에게 당신의 그 당신 말 마따나 고귀한 육체를 염가로 구경시키셨읍니다. 마찬가지지요.」

「하하! 너는 이런 사회조직을 깜빡 잊어버렸구나. (중략) 미안하오나 남자에게는 육체라는 관념이 없다. 알아듣느냐?」

「미안하오나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회조직을 어째 급속도로 역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조라는 것은 일대일의 확립에 있습니다. 약탈결혼이 지금도 있는 줄 아십니까?」

(중략)

「그럼 저도 평등하고 온순하게 당신이 정의하시는 「본능」에 의해 당신의 과거를 질투하겠습니다. 자—우리 숫자로 따져보실까요?」(「동해(童骸)」, pp.278-9)

두 사람의 논쟁은 동등하게 만나는 남녀라면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정조 개념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이 만나 동거한 금홍이는 동기 출신으로 당시의 일반 여성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성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상과 함께 동거하는 동안에도 카페 여급이라는 신세대 도회지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동거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말없이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모르기는 왜 몰라—연이는 지금 방년이 이십, 열여섯살 때 즉 연이가 여고 때 수신과 체조를 배우는 여가에 간단한 속옷을 찢었다. 그리고 나서 수신과 체조는 여가에 가끔 하였다. (「실화(失花)」, p.362)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느니라고!

금홍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려의 일실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은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에 편의를 도우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봉별기(逢別記)」, p.351)

소설 속에 나타나는 선이(단발) 연이(실화), 임이(동해), 금홍이(봉별기), 연심이(날개), 정희(종생기), 나미꼬(지주회시)들은 대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기존 성역할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뒤바뀐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혈연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자화된 그의 여성이 정조와 가족부양을 맞바꿨을 때 여성은 이상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전적인 지배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그에게 모성적 보호자로 다가오며, 이상은 갓난아기처럼 퇴행하여 자신의 폐쇄된 공간인 방안에 칩거하게 된다.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

금홍이는 겨우 스물한살인데 서른한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서른 한 살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열일곱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마흔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기실 스물세살이오.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똑 여나믄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봉별기」 p.350)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

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날개」, p,321)

역으로 볼 때 여성들의 이런 성역할은 이상이 기대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여성들이 아니었다면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은 그의 소설 속에서 사회통념과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위태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대한 그의 태도 또한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가적이고 애매하다.

3) 상징적 상상력으로 나타내는 이성(異性) - 꽃과 가축

그가 인식한 타자로서의 여성성과 자신의 자아정체성으로서의 남성성은 각각 식물과 동물로서 응결된 이미지와 메타포로서 나타난다.[20]

18가구에 각기 별러 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는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볕 안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 아니 그 꽃에 매어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날개」, pp320-1.)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중략)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넙죽 받아먹기는 했으나..(「날개」, p,326)

아내는 '화초처럼 곁에 놓인 여인'(「동해」, p.259)이고 이상은 '이국종 강아지'(「실화」), '가축처럼 사육되는', '임이가 스프링을 감으면 구두를 물고 늘어져 흔들어대는 그레이하운드 DOUGHTY DOG' 인형(「동해」, pp.272-3)이기도 하다. 식물적 여성은 전통적 여성성이고, 가축적인 남성

20) 오생근, 김윤식 편, 「동물의 이미지를 통한 상상의 세계」, 「이상문학전집」4, pp.187~9.

은 전도된 상태에서의 남성에 대한 상징적 상상력을 나타낸다.

> 아내에게무엇을물어보리요?그러니까아내는대답할일이생기지않고따라서부부는식물처럼조용하다.그러나식물은아니다.아닐뿐아니라여간동물이아니다.(「지주회시」, p.297)

이상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가축이나 식물이라 규정할 때, 타자화된 여성과의 관계는 큰 갈등이 없다. 그것은 이상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신의 의무를 여성에게 넘기고 여성적 성 역할을 차지했을 때 그는 가축이나 동물로서 편안하다. 그러나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식물적 상상력이 동물적 상상력으로 옮아갈수록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아간다.

「지주회시」는 '거미와 돼지가 만나다' 는 뜻으로 여기에서 거미는 그와 그의 아내이고, 돼지는 A취인점 전무이다. 카페여급인 아내에게 전무가 말라깽이라고 하자 아내는 양돼지라고 응수하다가 걷어차여 층계에서 굴러떨어졌다. 타인을 잡아 끝까지 빨아먹는데도 팔다리만 길게 마른 거미, 타인 속에서 나오는 거미, 그것이 바로 그와 아내가 거미인 이유이다. 돈 잘 벌고 뚱뚱한 카페여급 마유미가 황금알 낳는 게사니이자 화수분이라면 마유미가 번 돈을 털어가는 오(吳) 역시 거미이다. 인간이 아니라 곤충인 거미로, 또 '인간이 원후인류로 (역)진화한 형태' 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자조적인 자의식의 상징이 된다.

>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사회가 스스로왔다. 생활이 스스로왔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날개」, p.324)

그러나 여기서 이상이 자신에 대한 동물상징을 여성에 의한 일방적 피해

의식만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주회시」에 나타나듯이 부부는 서로 식물이었고, 동시에 거미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상소설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두 상호간에 동질적인 상상력으로 귀결된다.

3.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이상 소설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은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간의 무화와 칩거형태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그렇다. 여기에서는 무화된 보편적인 시간과 당대의 특수한 시대성이 그의 소설에서 어떤 인식의 노즐을 거쳐 발산되는가를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관계를 통해 보고자 한다. 공간성 또한 이런 입장에서 화자의 자아와 현실세계와의 접점으로서의 여성성이 공간화되는 양식과 이상의 남성성이 공간화 되는 양식을 대조하여 보여준다.

1) 시대성에 대한 인식 – 세월 인식하기와 망각하기

일반적으로 볼 때 '시간'과 '세월'은 인식하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간'이 추상적으로 보편화된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세월'은 특정 지점에서 멈춰선 채 개인의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상 소설에서 여성과 남성의 만남은 무화된 시간으로부터 세월로의 전이과정이다.

>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날개」 p.320)

칩거공간에서 화자는 시간구별을 할 수 없다. 밤인지 낮인지 계절조차도 인식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 일부러 망각한 채로 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성과 갈등할 때 그는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 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날개」p.342)

이 순간에 무화된 시간성은 구체적이자 개인적인 세월의 무게로 변화한다.

「선이—오빠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깜작 놀랐소. 오빠도 그립디다—운명에 억지로 거역하려 들어서는 못쓴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는 오랫동안 「세월」이라는 관념을 망각해 왔소. 이번에 참 한참만에 느끼는 「세월」이 참 슬펐소. 모든 일이 「세월」의 마음으로부터의 접대에 늘 우리들은 다 조신하게 제 부서에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오. 흥분하지 말어요. (「단발」, p.291)

그러다가 유구한 세월에서 쫓겨나듯이 눈을 뜨면, 거기는 이발소도 아무데도 아니고 신방이다. 나는 엊저녁에 결혼했단다.(중략) 내 수염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고.(「동해」p.263)

정확한 숫자로 표현되던 그의 세월은 「실화」의 순환하는 시간구조와 「종생기」의 이원화된 시간 뒤집기에 이르러 주관적인 시간으로 변화한다. 「실화」의 경우1-9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분부분 역전되어 나타나던 시간은 9에 이르러 2의 앞부분으로 다시 연결되어 순환적 시간구조가 된다. 「종생기」는 1937년 3월 3일 미시 (오후1-3시) 이후 전개될 그의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을 이원화된 주체의 시간의식에 의해 묘사한다. 12월 20일이라는 마지막 날짜 표기까지의 삶이 「종생기」의 시간이며,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정희와의 관계이다.

나는 물론 그 자리에 혼도하여 버렸다. 나는 죽었다. 나는 황천을 헤메었다. 명부에는 달이 밝다. 나는 또다시 눈을 감았다. 태허에 소리있어 가로대 너는 몇 살이뇨? 만 이십오세와 십일개월이올씨다. 요사로구나 아니올씨다. 노사올씨다.

눈을 다시 떴을 때는 거기 정희는 없다. 물론 여덟시가 지난 뒤였다. 정희는 그리 갔다. 이리하여 나의 종생은 끝났으되 나의 종생기는 끝나지 않는다. 왜?(「종생기」p.396)

이상 소설의 시간성은 이처럼 그의 자아의식으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과의 교차지점으로 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2) 공간성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옷과 이상의 방

이상 소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방'이다. '집'이 아니라 '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폐쇄적 공간인 이 방에 타인의 존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악연으로서의 여성'이 '신방'에 들어오는 것((「동해」 p.264)이다. 타자화된 여성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기 공간에 타인을 어떻게 용납할 것인지의 문제는 바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관계로 이어진다.

우리문화의 전통적 성별 공간개념은 주거공간에서의 여성 공간과 남성공간의 분리였다.[21] 이상의 경우는 「날개」에서 방 하나를 두 사람이 장지문으로 나누어 쓰는 윗방과 아랫방의 구조로 변화된다. 남성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상위 공간인 아랫방으로 연계되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날개」는 이것이 전도되어 여성에게 햇빛드는 아랫방, 남성에게 해 한번 드는 일없는 윗방이 할당된다. 윗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아랫방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아내와 내방객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나'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 지나가야만 한다. 아내의 여성성의 공간은 나의 전도된 남성성의 공간이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동굴('황홀한 동굴-방', 「지주회시」)이자 자궁 같은 윗방의 남성에게 여성과 아랫방은 현실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22]

---

21) 김동욱 · 최인용 · 최길성 · 최래옥 공저, 『한국민속사』(새문사,1988)

이렇게 이상소설에서 그의 아내는 자주 현실과 연계되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아내의 양말이 바뀌면 계절을 인식하고 양말 속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서야 돈과 생활의 상호관계를 인지(「지주회시」)하게 된다. 이상이 방이라는 내부 공간에 속해 있을 때 이상이 보는 외부세계는 아내라는 타자와 동일시된다.

같은 공간에 동거하기 이전의 여성이 어떤 공간성으로서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 소설에서 공간성과 여성성은 반드시 '나'와 상호 관련될 때만 유표화된다. 여성성의 본질적인 공간성은 신체공간과 거기에 부수된 '옷'이라는 확장공간으로 표현된다.

>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 방이 벽에 못 한 개 꽂히지 않은 소박한 것과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정 밑으로 쫙 돌려 못이 박히고 못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그 여러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우즈를 연상하고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
>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중략)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고무 밴드가 끼여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날개」, .p.323)

이상에게는 옷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방'이다. 몸에 맞는 옷처럼 '방'은 그에게 맞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상의 방에 해당되는 공간을 타자화된 여성은 옷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여성성의 공간이 화려하면서도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수시로 걸치고 돌아다니는 '옷'이라면 남성성의 공간은 음침하게 정체되어 있는, 폐쇄된 '방'인 것이다. 양성 공간의 대립은 '옷'과 '방'으로써 확인된다. 이상의 피해의식은 자신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수시

22) 황도경, 앞의 논문, 1987.
_____, 앞의 논문, 1993

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옷처럼 임의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방은 하나뿐이고 움직일 수 없는 정형화된 공간이다. 그러나 옷은 다수이고 가변적이다. 붙박이 남성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여성을 바라보는 공간의 구도는 타자에 비추어 이상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상에게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갈등과 이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4. 이상이 바라본 여성성

이상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은 이상이 바라본 타자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잘 나타낸다. 그러나 소설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그의 이해는 치기어린 여성편력[23]의 결과로서 간주될 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갈망은 자기 존재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갈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이상은 어머니와 가족에게 지극했다[24]고 하는데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은 혈연관계에 있는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 완전한 타인으로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애인에서 출발해 아내가 되는 여성들이다.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모든 가족관계를 배제하고 일 대 일로 만나게 되는 남성과 여성은 존재 대 존재로서 마치 거울을 대하듯이 대등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아와 타자로서 만나게 되는 이 관계는 상호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를 무시한다면 다른 하나의 존재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상은 소설 속에서 여성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나에서 출발해 나 아닌 타자와의 만남

23) 그런 관계는 「지주회시」에서 오(吳)와 카페여급 마유미의 상호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

24) 김옥희, 「오빠 이상」(『신동아』 1964.12.)

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1) 타자 – 애인이자 아내이자 상대편 선수

이상이 만나는 여성들은 애인이자 아내가 된다. 물론 그 아내는 일반적인 가부장적 의미에서의 아내와는 다르다.

>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기법에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 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 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날개」p.318)

대등한 관계로 만났지만 약식 결혼이라는 형태를 거친, 동거에 가까운 아내다. 따라서 그 둘의 관계는 그리 튼튼히 엮어진 관계가 아니며, 서로 절반씩만 내놓은 임의적인 만남에 가깝다. 그 관계의 유동성은 언제나 타자로서의 여성을 나와 등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대편 선수로 인식하게 만든다.

> 소녀는 그만 속이 발끈 뒤집혔다. 이 씨름은 결코 여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고 내심 분연하였다.(「단발」p.250)

> 혹은 이 시합은 승부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하려나—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중략). (「단발」p.251)

그러자니 계속 밀고 당기고 각자의 욕구 실현을 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과정이 계속된다.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하면 갈등은 더 치닫게 된다.

윤은 우물쭈물하는 것도 같더니 「바통 가져가게」한다. 나는 일없다. 나는 절을 하면서

「일착 선수여! 나를 열차가 소역을 잘디잔 바둑돌 묵살하고 통과하듯이 무시하고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순간 임이 얼굴에 독화(毒花)가 핀다. 응당 그러리로다. 나는 이착의 명예같은 것은 요새쯤 내다 버리는 것이 좋았다. 그래 얼른 릴레를 기권했다. (「동해」, p.281)

이런 밀고 당김은 이상소설에서 때로는 풍자로, 아이러니로, 역설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심판이여! 정희에 비교하여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 않소이까? 비등 비등? 나는 최후까지 싸워보리라.(「종생기」p.395)

2) 관계 – 양파껍질 벗기기와 도박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시합이 계속될 때 여성 쪽에서는 '비밀이 곧 재산'(「실화」)이고 남성 쪽에서는 '밑질 것 없는 도박'(「동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에 제3자가 들어서게 될 때는 상호간에 속고 속이는 속임수의 과정이 릴레이처럼 더 반복되는 것이다.

S도 K교수도 나도 연이가 엊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S도 K교수도 나도 바보요 연이만이 홀로 눈가리고 야웅하는데 희대의 천재다.(「실화」p.363)

이상! 당신은 세상을 경영할 줄 모르는 말하자면 병신이오. (중략)

아니지! 정희! 그게 뭐냐하면 나도 살고 있어야 하겠으니 너도 살자는 사기, 속임수, 일부러 만들어 내어놓은 미신, 중에도 가장 우수한 무서운 주문이오.(「종생기」p.392)

모든 것은 끝났다. 어젯밤에 정희는—

그 낯으로 오늘 정희는 내게 이상선생님께 드리는 속달을 띄우고 그 낯으로 또 나를 만났다. 공포에 가까운 번신술이다.이 황홀한 전율을 즐기기 위하여 정희는 무죄의 이상을 징발했다. 나는 속고 또 속고 또 또 속고 또 또 또 속았다.(「종생기」 p.396)

이런 속임과 속임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의구심, 타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행위로서의 양파껍질 벗기기는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계집의 얼굴이란 다마네기다. 암만 베껴 보려므나. 마지막에 아주 없어질지언정 정체는 안 내놓느니.(「실화」p.369)

이상 소설에서 여성들은 양파처럼 껍질로 자신을 단단히 겹겹으로 싼 채 여러 가면 쓴 얼굴을 여러 남성들에게 보여준다. 옷으로 겹겹이 자신을 두르는 것처럼 여성들은 양파라 규정된다. 그러나 여성을 둘러싼 그 양파 껍질에는 신체적 정조까지 포함된다. 여성의 공간성이 유동적인 옷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양파'로 규정될 수 있다. 벗겨도 벗겨도 껍질밖에 없는, 껍질 그 자체가 양파의 본질이다. 양파야말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상징인 것이다.

이상은 처음에 끊임없이 양파껍질을 벗기고 벗기면 여성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양파껍질 벗기기를 일종의 도박으로서 생각한다. 껍질은 일종의 포장지로서 안에는 반드시 진리에 해당되는 알맹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파는 본질적으로 껍질 그 자체이다. 또한 양파껍질 벗기기는 양파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 전통적인 젠더의 개념에 익숙한 남성들, 여성에 대한 소유

개념에 익숙한 남성들, 생물학적 성과 고귀한 연애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길들여진 남성들에게는 이런 여성성이야말로 낯설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여성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피해의식의 근저에는 다른 남성을 의식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들어 있다.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사기, 도박, 위트와 말놀이를 통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과장하여 보여주려고 한다. 이상 소설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 속에 한발을 담그고 반만 내어민 절름발이로서의 생활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상 소설에 나타난 쌍방간 주고받는 속고 속이기는 상대방의 정체를 더듬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방법이다. 나의 의식과 타인의 의식, 동등하면서도 팽팽하게 긴장된 시선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것은 남성성의 자아정체성이 타자화된 여성, 거울 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 사이의 대결과 속임수를 통해 확보되는 탓이다.

3) 선택 – 영원한 절름발이로 걷기

이런 관계 위에서 이상은 여성을 결여된 존재인 불구자로서 치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불구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 슬퍼?응—슬플밖에—20세기를 생활하는데 19세기의 도덕성 밖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한 절름발이로다. 슬퍼야지—만일 슬프지 않다면—나는 억지로라도 슬퍼해야지—슬픈포우즈라도 해 보여야지—왜 안 죽느냐고? 헤헤!내게는 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버릇밖에 없다. 나는 안 죽지. 이따가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중속(衆俗)을 속여주기만 하는 거야.아—그러나 인제는 다 틀렸다. 봐라. 내팔. 피골이 상접. 아야아야. 웃어야 할 터인데 근육이 없다. 울려야 근육이 없다. 나는 형해(形骸)다. 나—라는 정체는 누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 버렸다. 나는 오직 내—혼

적일 따름이다.(「실화」pp.368-9)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날개」, p.343)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의 인생은 상징계적인 도덕성이 남성위주의 가부장제를 강요하는 데서 온다. 상징계의 질서로서 억압할 수 없는 여성성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성과 남성의 끝없는 경합을 통해 자기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지닌 속성을 받아들일 때, 이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규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남성을 완전한 존재로, 여성을 타자화된 존재로서 규정하는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새로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상의 자아정체성은 타자화된 여성성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렇게 해명될 수 있다.

여성성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소수(素數)(「동해」 p.268)와 같은 존재로 굳어질 때, 그리고 전도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관계를 받아들일 때, 이상 자신의 남성성은 절름발이라는 것으로 귀착된다. 소수와 절름발이의 공통점은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은 여성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을 절름발이로 규정하며, 동시에 형해(形骸)이자 흔적(痕迹)일 뿐이라고 본다. 그것은 상징계적인 시각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법을 따를 때 그렇다. 그러나 이 관점을 벗어나 여성의 여성성을 양파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남성성을 절름발이라 받아들일 때, 그는 역설적으로 날개를 얻는다.

5. 나오는 말

이상 소설은 자의식이 넘치는 소설이라 규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의 자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들은 비혈연관계로 맺어진 여성들이다. 일대일 독립적인 개인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여성과 남성들은 상호간 성적 대상자들로서 위치지워진다.

남성성은 이상 본인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방식을 통해 구현되며, 여성성은 이상의 여성편력과 관계되어 소설에 형상화된 각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상 소설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인물의 외모에 대한 묘사와 상징, 그리고 당대 성담론이 담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의 갈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뚜렷해진다. 또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었다.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은 시합에서의 동등한 경쟁자 선수로서 나타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준수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상 소설의 남성성이 바라보는 타자로서의 여성성은 '양파'와 '소수'라 일컬어질 수 있다. 여기에 걸맞게 남성성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데, 이상은 그것을 절름발이의 인생이자,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린 형해의 흔적이라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날개를 얻는다.

전통적 가치관의 질서의식이 부여하는 억압으로부터의 일탈, 그것은 이상소설이 보여주는 양성구유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이화여대 강사

참고문헌

김윤식, 『이상문학전집 2-소설』, 문학과지성사, 1991

김윤식 편저, 『이상문학전집 4- 이상연구에 관한 대표적 논문 모음』, 문학사상사, 1995

강금숙, 『여성의 글 여성의 삶』, 국학자료원, 1999

강금숙 · 김옥순 · 박경혜 · 신은경 · 이경희(공저), 『한국 페미니즘의 시학』,동화서적, 1996

권윤옥, 「이상소설의 시간분석」,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김옥희, 「오빠 이상」, 『신동아』, 1964.12.

김원홍, · 이인숙 · 권희완(공저),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출판부, 1999

김주현, 「이상소설의 글쓰기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김해옥 외(공저),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연구』, 깊은샘, 2000

노지승, 「이상소설의 시간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설영숙, 「이상소설의 탈중심적 담론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오생근, 김윤식 편, 「동물의 이미지를 통한 상상의 세계」,『이상문학전집4』

이 경, 「이상소설에 있어서 작중인물의 양면성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5

이계윤, 「이상소설의 공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이시영, 「이상소설의 서술구조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0

이병렬, 「이상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1996

이현숙, 「이상소설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위상」, 수도여자사범대 석사학위 논문, 1976

정영자, 「한국 여성주의(Feminism) 문학의 전개 과정과 전망」, 『여성과 문학』제1집, 한국여성문학연구회, 1990

조갑순, 「이상소설의 문체분석」,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83

조금희, 「이상소설에 나타난 시간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1989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 『문학사상』, 1986.11.

최영희, 「이상소설에 나타난 소외과정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8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1999
허남영, 「이상소설에 있어서 주관적 시간의 의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1
황도경, 「이상소설의 공간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7
_____, 「이상의 소설공간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3
허민석, 「이상소설의 인물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1995
모리스, 팸,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일리치, 이반, 최효선 · 이승환 역, 『젠더-젠더에서 섹스로』, 도서출판 따님, 1989
터틀, 리사, 유혜련 호승희 역,『페미니즘 사전』, 동문선,1999

Abstract

Feminity of Lee Sang's novels

Rah, Eunjean in Ewha Univ.

Lee Sang's novels is the novel dealing with self-consciousness. To understand his idea, we must understand the relations with The Others in his novel. These people have no relations like family members. They are just sexual partners.

Lee Sang's male sexuality is known by expressions in his novel. Feminity appears among the characters in his novel. The sexuality of both female and male becomes specific when there's a conflict between each character's appearance and traditional customs.

Cutting off hair(women) and shaving(men) hold opposite meaning. Women obtain power when they get a haircut but, men lose their power. The roles of sexuality in both women and men are switched in the novel. This switched roles enabled women to take care of family. Feminity as The Others and male sexuality as Lee Sang's are described as animal and vegetable imagination.

Both female and male sexuality also revealed by considering time and space. The meeting between a woman and a man is the process that can be moved from normal time to individualized time. Also, the feminity is the dress that can be changeable and decorative. The space of male sexuality is the room where is dark and isolated. Confrontation between two sexes is divided clearly into dress and the room. Lee Sang's paranoia begins with the skepticism that he is the optional existence like cloth for

women. Lee Sang's own room is the space that is only one and becomes standardization that can not move.

For Lee Sang, the conflict between male and female sexualities begins in this point. As described that spaceness of women is clothes, the sexual identities of women can be justified as onions. Shell itself, even if take off, is essence of onion. Onion is the symbol of feminity in Lee Sang's novel.

A crippled life is symbolized male sexuality. As male sexuality gimp's life who can not walk straight woman department which morality of The Symbols which is upper official reprimand enemy can not oppress as patriarch emperor of Pro-Male meet that sometimes prescribe. Lee Sang can justify the meaning of his existence when both male and female discards their superiority in endless competitions and then, accept that women sexuality is the onion and marginality. To accept the changes of male sexuality and justify it as the navigation of erasing self-identity, Lee Sang described it as a crippled life, men get new wings.

Escape from the normality is the possibility of androgyny that is described in his novel.